

2010년 상반기 국내외 자동차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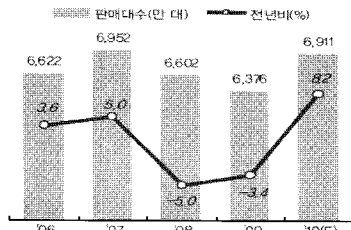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의 세계 자동차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세계 자동차 판매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지속과 선진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3,566만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자동차 판매는 신차의 판매 호조와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뒷받침되어 16.1% 증가를 시현하였다.

1. 세계 동향 (총괄)

2010년 상반기 세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비 대비 16.8% 증가한 3,566만 대로, 신흥시장의 성장세 지속과 미국 등 선진시장의 회복 등이 글로벌 시장의 호조를 견인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대중화 확산은 증가세를 뒷받침하였다.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와 독일, 브라질 등의 신차구입 지원정책의 종료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지난해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선진 시장이 회복되었고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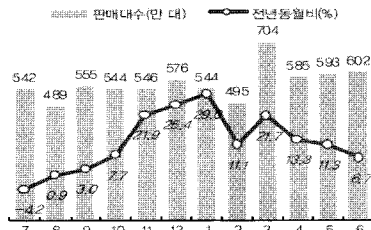
경기회복 영향으로 대형 및 SUV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대형 차급은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와 대형차 비중이 높은 선진시장의 회복으로 지난해 1/4분기 3.1% 비중에서 금년 동기에는 3.6%를 기록하였다. SUV 비중도 2009년 1/4분기 12.0%에서 13.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SUV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 연도별 세계 자동차 판매 〉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 2010년 7월

〈 2009년~2010년 월별 세계 자동차 판매 〉



자료 : J.D.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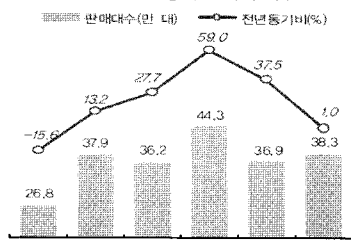
시장에서의 성장과 유럽에서도 비중 확대에 힘입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여 금년 2/4분기 선진시장의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37.0% 증가한 22.2만 대를 기록하였다.

2. 국내 동향

금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75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하였다.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6.4%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최근 출시된 신차의 판매 호조와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호조세를 뒷받침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보다 미약하였다.

차종별로 금년 상반기의 판매 증가율은 중형, 경차, SUV 순으로 나타났는데, 중형은 최근 쏘나타, K5, SM5 등 신차의 집중 출시로 판매가 가장 크게 증가(33.7%)하였으며, 경차는 모닝이 5개월(1~5월)간 모델 판매 2위에 오르며 판매를 견인하여 33.3% 증가하였고, SUV는 투싼ix와 4월부터 판매가 본격화된 스포티지R의 호조로 18.7% 증가하였다.

〈 분기별 자동차 판매 추이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상반기 국내시장 주요 영향 요인 〉

빠른 경기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률 6.4% 생산, 소비, 수출 등 주요 부문 모두 호조세
신차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신형 쏘나타, 투싼ix 기아: K5, K7, 스포티지R 르노삼성: 뉴SM3, 뉴SM5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부진 모델 현금 할인 폭 확대 무이자 또는 장기 저리의 파격적 할부금융 제공

업체별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두 자리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르노삼성은 승용 모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58.8%의 최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쌍용은 전년 동기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53.7% 증가한 반면, 현대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낮은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수입차 판매는 경기회복 및 환율 하락, 인기 모델의 신형 투입 및 공급량 확대, 업체들의 공격적 판촉으로 강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금년 상반기 4.2만대로 44.5%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는 월평균 7천대 수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높은 증가율은 전년 동기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영향도 작용하였다.

3. 해외 각국(지역)별 동향

가. 미국

미국의 금년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506만 대로,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판매가 증가한 것은 작년 수요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플릿(운송차량업체) 판매 비중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는 금융위기 여파로 수요 급감하면서 35.1%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플릿 판매 비중은 38.2%로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 평균인 33.6% 대비 4.6%p 증가하였다.

차종별로 소형 상용차 시장이 회복되면서 금년 상반기 소형 상용차 점유율은 약 50%에 근접하였다. 다목적성을 겸비한 CUV와 픽업의 판매는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면서 CUV의 점유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2.3%p 증가한 24.1%, 픽업 점유율은 금년 2월 12.1%에서 6월에는 13.8%로 증가하였다.

나. EU

금년 상반기 EU지역의 자동차 판매는 1/4분기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828만 대를 기록하였다. 상반기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의 폐차인센티브 연장 시행이 판매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 인센티브가 종료됨에 따라 판매 감소가 전망된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1/4분기의 판매 호조로 인해 상반기 판매에서 전년 동기대비 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유럽 국가 중 독일과 그리스만 판매 감소를 보였고 신규가입국은 침체가 지속되어 평균 16.4%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차종별로, 승용은 감소하고 소형 상용은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승용 부문에서는 폐차인센티브 후유증으로 소형승용을 비롯하여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고 승용 대형차 및 고급차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회복되어 판매가 증가되었다. 반면, 상용은 경기회복 및 폐차인센티브의 영향 약화로 SUV 15.3% 증가, MPV 13.8% 증가 등 전 차급에서 판매 증가를 시현하였다.

다. 일본

금년 상반기 일본의 자동차 판매는 세금 감면과 구입 보조금 지급 등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수요를 견인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한 266만 대를 기록하였다. 정책 지원을 받는 친환경차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구입 보조금 지급은 3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9월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고연비·저배기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였는데, 하이브리드차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9.9%(26만 대)를 차지하였고, 프리우스의 판매는 17만 대로 하이브리드차의 65%의 비중을 점하였다.

차종별로는 친환경차 구입지원 정책 효과로 모든 차급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승용을 제외한 모든 차급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보통승용 부문은 가장 큰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혜택으로 59.3%로 가장 큰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소형승용 부문은 혼다의 하이브리드차 주력 모델인 인사이트의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비중이 축소되었고, 정책 혜택이 소형·보통승용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경승용 판매는 3.2%의 더딘 증가세를 보였다.

라. 중국

금년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구매세 상향 조정으로 인한 차량 가격 인상 등 정부 지원책 축소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판매량은 902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47.7%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 둔화로 상반기 자동차 재고는 129만 대였으며, 일부 업체는 감산 조짐을 보였다. 경기 안정화와 배기량 1.6ℓ 이하 승용차 구매세 상향 조정(5%→7.5%), 지난해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신차 출시 확대 등으로 중대형 세단 차량이 호조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중대형 라인업이 다양한 업체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마. 기타 (인도, 러시아, 브라질)

금년 상반기 인도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38.6% 증가한 146만 대로써, 전년도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상승되었고,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었다. 집중적인 신차 출시로 콤팩트급 점유율이 회복세를 보였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대형상용 판매 증가는 지속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업체별로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대부분 업체가 판매 호조를 보였는데, 혼다는 리콜, 모델 노후화 등으로 업체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는 국내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에서도 정부 지원책 확대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79만대를 기록하였다. 폐차인센티브 혜택 집중과 업체 간 주력 모델 출시를 통하여 C세그먼트 차량 비중이 증가하였고, 폐차인센티브 효과가 승용 판매에 집중되면서 2009년 2/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SUV 비중은 축소되었다.

브라질 자동차 판매는 금년 상반기 150만 대로써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산업 부양책이 판매 증가를 견인하였고, 안정적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은 것이다. 3월까지 시행된 공업세 감면 정책으로 국민차 판매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3월 이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자료원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 '2010년 2/4분기 세계 자동차시장 동향' (2010.7.30)〉